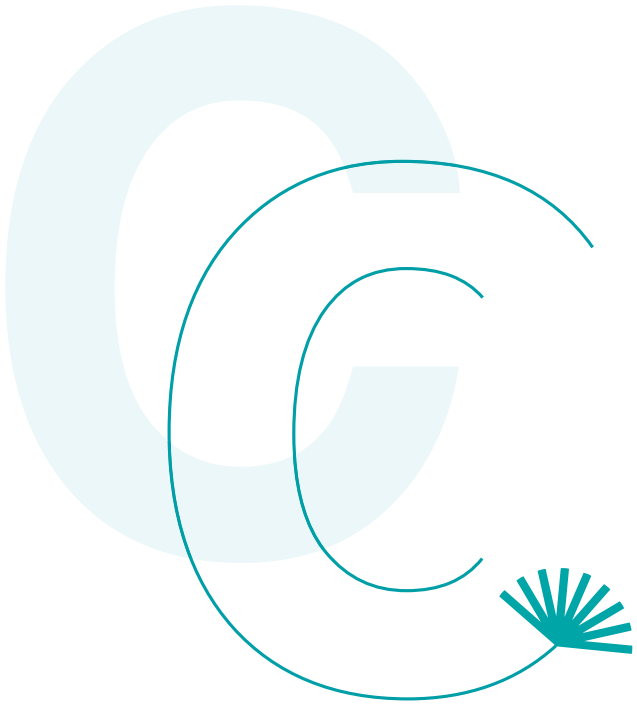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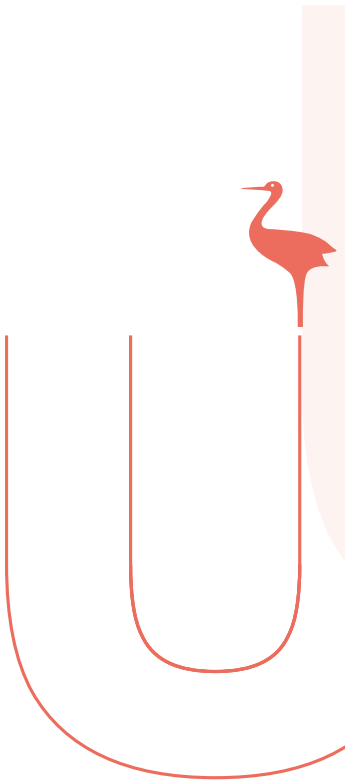
CSU Monthly 2025년 11월호





# 조선대학교

시대의 진심, 미래의 중심



# WEEKLY Headline

- 10월 첫째 주: 조선대·조선간호대, 글로컬대학 최종 선정
- 10월 둘째 주: 추석 연휴
- **10월 셋째 주: 의과대학, 2025 의대 교육혁신지원사업 S등급 선정**
- 10월 넷째 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채석진 교수, 광주 출신 스웨덴 해외입양인과 지역사회 소통 간담회 개최
- **10월 다섯째 주: 조선대, 베트남 주요 대학 및 기관과 교육·연구 협력 강화 나서**

## 조선대, 베트남 주요 대학 및 기관과 교육·연구 협력 강화 나서

### 베트남 현지 대학과의 MOU 체결 및 산업체 방문
### 글로벌 교육·연구 협력 및 산학연 네트워크 확대

조선대학교가 유학생 유치와 취업 연계 등 실질적인 글로벌 교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일대에서 현지 주요 대학·기관·기업을 방문했다.

조선대학교는 이번 일정을 통해 ▲문화대학교 ▲자원환경대학교 ▲투이러이대학교 ▲건설대학교 등 4개 주요 대학과 협력 체계를 공식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교육과정 및 복수학위 프로그램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춘성 총장을 비롯해 김현우 대외협력처장, 김용재 산학협력단장, 위성옥 대외협력부처장이 함께해 현지 대학 및 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대학교와 자원환경대학교와는 각각 '교육·연구 협력 및 학생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해 학생 교류·공동연구·세미나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문화대학교는 도서관 1층에 '조선대학교 홍보관'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교 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투이러이대학교에서는 기존 협약을 기반으로 한 협력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현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선대학교 홍보 및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 건설대학교와는 이전 협약의 후속 단계로 건축공학 세미나, 교환학생 및 단기 캠프 운영 등 다양한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조선대학교 방문단은 VTK 클린산업단지, 현대엘리베이터 베트남 법인, 현지 제약회사 등 주요 산업체도 방문해 베트남 유학생의 현지 취업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하며 글로벌 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VTK 클린산업단지는 향후 세종학당 사업이 선정될 경우, 현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 한국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전공과정 및 유학생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선대학교 김춘성 총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을 통해 교육·연구·산학 네트워크를 다층적으로 강화하고, 국제협력 역량과 교육 경쟁력을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 간 교육·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광주·전남 지역 대학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조선대 의과대학, 교육혁신지원사업 S등급 선정

## 지역 협력의료기관과 MOU 체결… 교육혁신 본격 출범
## 2026년 8월까지 총 33억원 지원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이 교육부 의과대학 교육혁신지원사업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에 선정됐다. 이로써 대학은 2026년 8월까지 총 33억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 의대 교육혁신지원사업은 대학별·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우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의과대학(학장 안영준)은 이를 기념해 9월 30일 의성관 김동국홀에서 '2025 의과대학 교육혁신지원사업 출범식 및 지역협력의료기관 MOU 체결식'을 개최하여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선대학교 김춘성 총장, 조선대학교병원 김진호 병원장, 교육부 윤혜준 의대교육기반과장,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부회장, 각 지역협력의료기관장, 의과대학 교수 및 학생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출범식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지원 예산이 안내됐으며, 전라남도의사회, 광주보훈병원, 첨단종합병원, 광주센트럴병원 등 지역협력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식과 감사패 증정식이 함께 진행됐다.

조선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우수 의료인재 육성 ▲지역 의료 수준 향상 및 국민 건강 증진 ▲선진 의료시스템 구현을 위한 임상실습 교육협력 등에 나선다. 또한 통합 6년제 교육과정,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 지역 임상실습 협력체계 대폭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며, 의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계획이다.

안영준 의과대학장은 "이번 사업은 의학교육 혁신, 지역의료 균형발전, 미래 의료인재 양성이라는 세 가지 큰 비전을 담고 있다"며, "학생들이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적 사고와 융합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춘성 총장은 "교육혁신지원사업 S등급 선정을 통해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세계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해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전했다.



# 조선대 학생들, 스포츠 저력 빛내

## 전국체전 8개 메달 쾌거 이어 프로배구 신인 1라운드 지명까지

조선대학교가 올해 가을, 대학 스포츠의 저력을 발휘하며 체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조선대 선수단이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등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체육학과 박인우(4학년) 선수가
한국배구연맹(KOVO) 남자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3순위로 OK저축은행의 지명을 받으며 프로 무대에 진출했다.

### 전국체전, 4개 종목에서 고른 성과

조선대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출전해, ▲레슬링 ▲육상(필드) ▲배드민턴 ▲태권도 등 4개 종목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대학 스포츠의 저력을 입증했다.

레슬링에서는 유송현(3학년) 선수가 남자대학부 자유형 65KG급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육상(필드) 종목에서는 고은정(1학년) 선수가 여자일반부 높이뛰기 은메달을 획득했다.

배드민턴에서는 이아영(3학년), 이은희(3학년) 선수가 여자대학부 개인 복식에서 각각 은메달을, 김서현(1학년), 문하은(1학년), 배주영(4학년), 오시연(2학년), 이아영(3학년), 이은희(3학년), 최은서(3학년) 선수가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수상했다.

태권도 종목에서는 남자대학부 김혜규(3학년) 선수가 -58kg급 금메달, 최재민(2학년) 선수가 -68kg급 동메달, 이요셉(4학년) 선수가 -87kg급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으며, 여자대학부 김민경(4학년) 선수가 -57kg급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다.










육상 높이뛰기 고은정 선수(왼쪽에서 두 번째)

## ‘190cm 세터’ 박인우, 프로 무대 입성

체육학과 4학년 박인우 선수가 10월 27일(월)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2025-2026 한국배구연맹(KOVO)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3순위로 OK저축은행의 지명을 받았다.

190cm의 장신 세터인 박인우 선수는 한국 배구에서 보기 드문 신체 조건과 뛰어난 점프력, 안정적인 블로킹 능력을 갖춘 선수로, 이번 드래프트에서 세터 포지션 중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대학 배구계를 대표하는 차세대 유망주로 주목받았다.

박인우 선수는 올해 열린 ‘2025 현대캐피탈배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연맹 1차)’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최우수 세터상을 수상했고, 이어진 ‘전국대학배구 단양대회(연맹 2차)’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하며 꾸준한 기량을 입증했다. 또한 ‘제24회 서일본 대학 남자배구 선발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해 3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무대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박인우 선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팀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는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instagram

facebook

blog

youtube

##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참여 안내

**참여방법**

'조선대학교 발전기금'사이트에서 온라인 약정

조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다운로드하여 우편, 이메일, 팩스 송부

**계좌안내**

신한은행 100-036-638130(예금주: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문 의**

조선대학교 홍보팀(062-230-6234/ fund@chosun.ac.kr)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팀**

☎ 062-230-6490 **E-mail:** cupress@chosun.ac.kr